Open Doors

01
2023
VOL.249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9)"
박해뉴스
-베트남,콩고,인디아
박해와 선교현장
– 말리(Mali)
현장 스토리1
– 이란 – 희망의 빛을 전하는 샤하르
현장 스토리2
– 니카라고– 정부감시하에도 선교하는 윌버 목사님
현장 스토리3
베네쥬엘라–충격을 주고있는 빅토르 목사님 사건
현장 스토리4
멕시코 – 막을 수 없는 멕시코 목사님들
Heart to Heart
– 오픈도어 영국팀 방문 /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 Doors

COLUMN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김성태 목사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삼 년이 넘는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큰 은혜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선교현장은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난관도 많았고,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중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시기마다 때마다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은 지난 3년 동안 국경봉쇄와 철권통치 그리고 계속 동아시아의 긴장을 유발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험 등으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였습니다. 북한 내부의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물품들을 공급하는데 고비도 많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길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적적인 문 열림이 있었고, 그 문을 통하여 북한 내부의 교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과 서방세계의 각종 제재 등으로 러시아에서 북한 건설노동자들과 벌목공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역이 상당한 위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악화된 상황을 또 다른 선교의 문을 여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북한의 내부 봉쇄로 노동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북한으로 귀환하지 못한 수 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러시아교회와 교인들이 이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지며 추수시기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고난 받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하여 문을 열어 주십니다. 실로 개혁신학의 원조가 되는 존 칼뱅이 고백한 바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분의 백성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예기치 못한 오지 변방 나라들의 교회와 교인들의 도움을 통하여 선교 비용을 송금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없었던 핵심 현장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므로 많은 구령의 열매와 사역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주옥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고 있는 유럽의 연합 개혁교회의 선교기구의 지도자가 자신의 가정으로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따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억만장자의 부유한 사업가이지만 자신의 부와 재산을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신의 자녀 모두를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며 믿음과 선교비전을 전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였습니다.

2023년 새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코로나 판데믹 기간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 해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과 소망과 사랑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앙과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의 불순물을 벗겨 버리고, 소망과 평강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모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전 세계의 모든 고난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9)"

07 **박해뉴스**
베트남 / 콩고 / 인디아

10 **박해와 선교현장**
말리(Mali)

14 **현장스토리 01**
이란 – 희망의 빛을 전하는 샤하르

18 **현장스토리 02**
니카라고– 정부감시하에도 선교하는 윌버 목사님

19 **현장스토리 03**
베네쥬엘라-충격을 주고있는 빅토르 목사님 사건

20 **현장스토리 04**
멕시코 – 막을 수 없는 멕시코 목사님들

22 **Heart To Heart**
오픈도어 영국팀 방문/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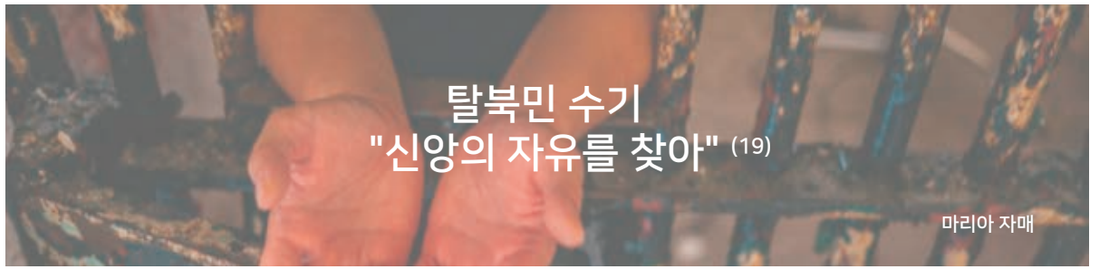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2023년 01월호 | 통권 249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샛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__예금주 공통__: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9)

마리아 자매

한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팀이 형성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며칠을 기다렸더니 내가 머물렀던 좁은 집에 9명이 모였다. 아무래도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이다 보니 침대가 모자라 나중에 왔던 사람들은 바닥에서 잤다. 이 좁은 공간에 9명이 꽉 차도록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으면 소음이 새나가는 것이 걱정이었다. 같은 팀에 돌도 안 된 아기와 애엄마도 있었고 어린 남자아이도 있었다. 애기는 워낙 어려서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울었으며 남자아이는 한창 궁금한 게 많은 나이인지 말도 많고 불평도 많았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출발 전부터 과연 이 팀이 무사히 한국행을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빨리 출발하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점심 즈음 허기를 달랠 음식을 간단히 먹고 기다리는데 브로커가 와서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하라는 공지를 했다.

출발을 담당한 브로커가 우리보고 최대한 짐을 적게 가져가라고 말했고 나는 세면도구와 옷가지 몇 개만 챙겼다. 나중에 진이 빠지게 이동을 하면서 그 브로커의 말을 듣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있던 중국의 한 마을에서 다른 국경지역 마을까지의 이동을 시작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나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2층 버스를 탔다. 출발할 때 멀미약을 단단히 챙긴 것이 나와 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2층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한 후 고속도로 중간 즈음에 내렸다. 어느새 깊은 밤이었다. 고속도로 옆 땅은 밑으로 깎여 있었고 그 아래 허리까지 오는 작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담당했던 브로커가 경사면 밑 나무 사이에 숨어있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고서는 중국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꼭 성공할 것이라고 안심을 시킨 뒤 떠났다. 우리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 밑에 숨어서 그 다음 차를 기다렸고, 얼마 되지 않아 9인승 승합차가 우리를 태워갔다.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겨울옷을 입고 출발했으나 우리가 그 다음 도착한 국경지역부터는 날씨가 아예 달라서 여름옷을 입어야 했다. 9인승 승합차에서 내리자 나무판자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캄캄한 한밤중에 우리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집에 아무렇게나 나동그라져서 누웠다. 나는 어린 아기를 챙기는 애엄마를 생각하여 뒤쳐져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일행 가장 앞에 세워 가자고 말했고 모두들 그렇게 하자며 동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곤히 눈을 붙였다.

"일어나라! 빨리 나오라!" 오래지 않아 별안간 브로커가 거친 중국말 사투리로 황급히 우리를 깨웠다. 모두 소스라치듯이 벌떡 일어나 그 브로커 뒤를 따라갔다. 뭉쳐있지 말고 5미터 정도 떨어져서 나오라는 말에 행여 앞사람을 놓칠세라 모두 하나같이 집중하면서 거리를 띄워서 걸었다. 어느새 부둣가에 다다르자 그제야 우리는 누군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애엄마와 아기였다. 가장 앞에 세워서 걷자며 좀 전에 합의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신없이 이동했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가 타고 가야할 보트가 오기 전에 애엄마가 도착했다. 말은 안 통해도 동네 현지인들이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일러주더라는 것이었다. 아기를 업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다.

부둣가 철조망 벽에 탐조등을 피해서 애엄마를 제외한 우리 일행이 이쪽에 서있었고, 애엄마는 애기를 업고 저쪽에 서 있었다. 경찰차 수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고 탐조등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이곳저곳을 비추었다. 우리를 태울 보트는 언제쯤 오는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탐조등이 갑자기 애엄마가 두르고 있던 분홍색 애기 띠를 비추었고, 애엄마가 발각될 위기에 놓였다. 애엄마는 확 엎드려 몸을 낮춘 후 데굴데굴 굴러서 우리 쪽으로 이동했고, 그러는 동안 업혀있던 아기가 엄마 무게에 눌려 깨고 말았다. 아이가 빽 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나는 순간적으로 한손으로는 아기의 입을 꽉 틀어막고 또 한손으로는 애엄마 덜미를 붙들고 10미터 가량 뛰어서 어둠 속으로 다시 숨었다. 아기는 젖을 물리자 다시 조용해졌고 탐조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울음을 그쳤다.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저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 공안차가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그 때 동시에 우리를 태울 보트가 한 발 먼저 도착했고, 거의 특공대 훈련과 같이 가파른 부두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하나 둘씩 뛰어내렸다. 공안차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트 기사는 출발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저쪽으로 빨리 가자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신호를 보냈다. 5분 만에 물을 건너서 베트남 국경에 다다랐다. 도착한 곳 또한 벼랑같이 깎아 지르는 땅 위에 길이 있었다. 길 위에 오토바이 행렬이 주차되어 있었고 한 대 당 두 명씩 사람을 태우고 어디론가 분주히 달려갔다. 깊은 새벽에 어느 브로커 집에 애엄마까지 모두 도착하여 쪽잠을 잤다. 지금도 그 때 그 부둣가 상황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잡히면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로 긴장되는 그 순간들.

더욱이 우리가 베트남에 도착했을 당시 현지 분위기는 살벌했다. 중국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시점이라 중국인 편의점이나 마트를 부수는 시위도 잦았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했다.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아무런 이동 지시도 없었고 밥도 주지 않아 우리는 지치고 배고픈 그 상황을 불안함으로 그저 견뎌야했다. 오후쯤 되니 다른 브로커가 왔고 손짓 발짓으로 배고프다는 표시를 하자 그제야 원래 있던 브로커를 야단치면서 식사를 제공해주었다. 조금 쉬었다가 숨을 돌린 후 해가 지고 어두운 저녁이 되서야 정신이 들면서 애엄마에게 혼자 두고 떠나 미안하다며 어느 한 명이 말문을 텄고 그것을 계기로 다 같이 사과를 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남이었지마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생사를 함께하는 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금 출발할 때가 되었다. 베트남 출신 브로커가 와서 네 명, 다섯 명 조를 가르고 마스크를 주며 각기 다른 버스에 태웠다.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와 같은 조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엄마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며 땡깡을 부렸다. 보다 못한 내가 나서서 그 아이에게 우리는 여기서 벙어리처럼 얌전히 있어야 한다고 야단쳤다. 버스를 타던 도중에 검열이 올라왔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자는 척을 했다. 새벽에 버스가 인적 없는 마을 길가에 멈춰 섰고,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서 한 음식점에 들어가 다른 조를 기다렸다. 브로커는 뭐라도 먹어두라고 권했지만 장시간 이동에 지쳐 멀미와 두통에 시달리는 와중에 베트남 음식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더욱이 긴장한 마음은 안심이 되지 않아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다.

두 번째 조가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우리 조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쪽 일행에 합류했다. 우리 아홉 명은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는 라오스 국경을 향해 갔다. 꼬박 하루 정도를 이동했다. 도착할 때 즈음 되어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불상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믿는 신을 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떠올랐다.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12인승 탑승차를 탔는데 앉아서 가는 의자가 몇 개 없었다. 대부분 누워서 가야했다. 여자 브로커 한 명과 남자 브로커 한 명이 우리를 전달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키가 작고 얼굴이 새카맸다.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다. 산길로 가는데 그렇게 울퉁불퉁할 수가 없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영 불편했는지 아기가 참았

던 울음을 터뜨렸고, 애엄마는 아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저귀를 벗겨주었다. 조금 지나자 아이가 엄마 배 위에서 오줌을 쌌고 차 안에서 지린내가 진동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차에서 내려서 산을 걸어 올라가야했다. 엄청 가파른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덩굴 풀이 즐비했는데, 덩굴 풀을 떼려고 하면 살점이 떨어져서 아팠다. 가만 보니 북한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다 겪으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은 그 후덥지근하고 가파른 길도 그저 잘 따라오는 것 같았으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사람들은 험한 산길에 적응이 더디어 조금만 걸어도 얼굴이 새빨개지며 많이 힘들어했다.

그렇게 숲을 헤치고 몇 시간쯤 걷다보니 라오스 국경에 다다랐다. 산을 타는 내내 아기가 참 많이 울었고 첩첩산중에 아이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메아리쳤다. 난처해진 애엄마는 끊임없이 아기를 달래고 젖을 물리고 후덥지근한 가운데 아기 울지 말라고 부채질도 해주었지만 아기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울음을 멈추지를 않았다. 참다못한 한 브로커는 애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버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가파른 산도 그 누군가 먼저 개척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차가 대기하고 있는 국경까지 도착하였다. 모두들 산을 넘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였다. 큰 웅덩이를 뛰어 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승합차를 탔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누워서 가야했다. 새로 우리를 맞이한 브로커는 이제 라오스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제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고 우리를 반겨주었다. 라오스 땅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었다. 그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이국땅에서 끼니 한 번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했는데 이 여정의 끝자락에 오랜만에 마주한 고향 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나는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별맛'이라며 식사하는 내내 감탄하였다.

간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모텔 같이 허름한 숙소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한 숨 자고 라오스 수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마지막 이동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지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녘에 라오스 브로커가 경찰복을 입고 우리를 버스에 태워갔다. 대여섯 시간 정도 이동을 하니 낮이 되었다. 버스 종점에서 9인승 승합차로 갈아탔는데 그 기사님은 한국 사람이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한국말로 위로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다. 몇 시간을 또 이동하여 어떤 브로커 집으로 들어갔다. 브로커는 우리 보고 이제 거의 다 왔다면서 한국식으로 된 김치와 밥과 된장국을 내왔다. 우리는 그곳에서 씻고 잠시 쉬었다. 우리 중에 한두 명이 대표로 바깥에 나가 여름옷과 슬리퍼를 사왔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신발을 신으니 기분이 묘했다.

우리는 저녁 즈음에 라오스 한국대사관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맡았던 브로커는 대한민국 대사관 주변에 북한 대사관이 가까이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었다. 주위를 살피고 거동을 주의하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한 사람씩 내려서 걸어갔다. 이제 내 차례가 왔다. 삶의 무게가 두 발에 온전히 느껴졌다. 국경을 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지막 걸음걸음으로 라오스 대사관 도착 전까지 정말 말 그대로 심장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말 눈물이 났다.
마침내 대사관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나를 맞아주는 한국인 선생들의 그 따듯한 눈빛과 환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마치 천국에 들어서서 천사들이 나를 맞아주는 기분이었다. "아, 이제는 성공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前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베트남, 예수님을 따른단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난 싱글 맘

호아는 베트남 북서쪽에서 세살 짜리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다.

그녀의 이웃들이 그녀의 개종에 대해 알았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이웃들이 그녀를 위협하기 위해 왔고 그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둘 중 한가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평생 예수 없이 마을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마을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선택이였습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호아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따를 것이다. 나는 나의 새로운 믿음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녀의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로 가서 그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빌렸습니다. 오픈도어 지역 교회 파트너가 호아와 그녀의 딸에게 약간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업도 없고 농장도 없기 때문에 생계 수단이 없어, 그녀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주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아도 "당신의 기도 속에 나와 작은 딸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이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호아와 그녀의 딸을 위한 공급과 그녀가 앞으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그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녀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콩고 민주 공화국 동부에서 일어난 소름끼치는 습격

목요일 이른 아침, 10월 20일 연합 민주군(ADF)의 무장 괴한들이 마보야의 참조 보건 센터를 습격했습니다.

같은 회중의 카함부 수녀는 "그들은 문에 로켓을 발사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임산부를 수술해야 했던 마리 실비 수녀가 전화를 걸어 그

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덤불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재앙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경고하고,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그 여동생이 성모 마리아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머리에 총알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중에 안에 던져진 폭탄에 이어 병원을 집어삼킨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리 실비 수녀 외에도 병원에 있던 환자 1명이 탈출하려다 총에 맞아 숨졌고, 마보야 마을에서는 여성 2명, 가게 주인 여러 명, 남성 1명(유괴된 자녀), 보건소 경비원(70세) 등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ADF는 2개의 보건 시설(마보야 참조 병원 및 팅게 보건 센터)에 추가 피해를 입혔고, 2개의 약국과 여러 상점들이 약탈당했으며, 공격 후 여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팅게 보건소의 한 신자는 "테러범들이 도착하여 간호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고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폰을 달라고 해서 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내 간병인을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다른 병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젊은 여성 관리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소녀들 외에도, 그들은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약들을 먹었습니다."

마보야 공격의 생존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틴*은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하나님에게 감사해 합니다. "나는 덤불 속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아이와 함께 퇴원할 수 있었는지, 마취에서 막 깨어나던 참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보야에 있는 교구 중 한 곳의 지역 교회 지도자 아베는 그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공격은 우리를 제로(0)에 이르게 했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원하기 때문에 상점과 보건소를 약탈하고 불태웠다"고 한탄했습니다.

마보야는 북키부 지방의 베니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독교의 주요 지역입니다. 보건소는 마보야와 그 주변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생명을 구하는 센터가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취약하고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도로를 여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 모든 유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세요.
- 부상자와 다양한 공격에 따른 물질적 손실에 대처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육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인구와 지역에 대한 주님의 회복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재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귀중한 장기 자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이러한 공격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매일의 고난과 시련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 민주군(ADF)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정부 보안 장치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 민주군과 그의 동맹국들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콩고에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인디아_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공격: 집이 불타고, 거짓된 기소

10월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있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동안 박해 사건이 증가했다. 기독교 가족의 집들이 불에 탔고, 증오 연설이 입소문이 났으며, 기독교 신자들을 상대로 사람들을 개종시켰다는 거짓 주장, 외국인들은 종교적 추구를 수행한 것으로 잘못 기소되었다.

빈민가에 거주하는 8명 이상의 기독교 가족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갔는데, 난데없이 그들의 집에 불이 붙었다. 집에 있던 다른 신도 가족들은 불을 끌 수 있었지만, 나머지 8채의 집에는 LPG가 가득 차 있어 화재로 인해 집의 법적 서류부터 마지막 도구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원인을 부주의한 불씨 마무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은 반기독교적자들에 의해 의도적인 화재라고 신고했습니다.

주변 지역 사회는 이 40가구가 수년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불쾌해했지만, 그들이 "옛 신앙인 힌두교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한번 위협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지역 신도들은 이번 화재는 그냥 사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 신도들의 집에만 번진 계산된 화재여서 같은 반대파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죽의 무책임한 취급으로 시작된 화재였다면, 지난 며칠부터 이런 물질이 대량으로 취급되던 비기독교인들의 주변 지역으로 먼저 번졌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기독교 빈민가 주민 9명이 지역 마피아의 집을 비우라는 명령에 실제 조건으로 따르지 않자 400명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불평은 종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지역 경찰서에 연행해 구타하고 학대했습니다. 체포된 9명 중 6명은 불법 개종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여성을 체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젊은 엄마 3명이 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이 엄마들은 배고픈 아기들과 함께 감금되었다. 이 어머니들은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 혜택을 제공한 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주목하게 된 또 다른 소식은 스웨덴 국적자 3명이 현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스웨덴 국적의 사람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왔지만, 반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시켰다며 고발했습니다. 결국 독일 국적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스웨덴인이 추방된 다음 날 7명이 주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방문자 7명은 관광차 방문 중 교회에만 참석했을 뿐 종교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인을 개종시키고 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현지 기독교인이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종교 활동에 참여시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모든 것을 잃은 8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유목민 출신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힘을 찾을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 여성도 포함된 허위 개종 혐의로 기소된 9명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행동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독일분들을 초청한 혐의로 체포된 두 현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말리 (Mali)

기독교 박해지수 **24**위

인구(2021 UN 평가) : 20,893,000 명
기독교인구 476,000 명
기독교인비율 2.3%

지배적인 박해 동력과 동인

주요 박해 동력	주요 동인
이슬람 박해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 폭력적인 종교단체,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 또는 네트워크, 폭도를 포함한 시민(더 넓은 사회의 사람들), 자신의(확장된) 가족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	폭력적인 종교단체, 조직적인 범죄 카르텔 또는 네트워크, 정부관리
씨족 박해	소수 민족 지도자

박해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2012년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가 북부지역을 장악했을 때, 교회는 불타고 기독교인은 도망가야만 했다. 그 당시 일어난 기독교인의 이동은 그들의 집을 잃고 교회가 파괴된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과 회중은 경찰의 보호 아래 북부지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북부에서의 전도활동은 특히 위험하고 급진적 무슬림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말리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은 또한 지하디스트에 의한 지속적인 납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그들의 가족과 친척으로부터의 박해와 폭력의 위험을 무릅쓴다(특히 북부지역에서). 이 지역은 NGO를 운영하기에 또한 안전하지 않다.

말리는 정기적으로 기독교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위반함으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ICCPR 제6조, 7조, 8조, 14조,18조,19조)

- 기독교 개종자는 그들의 개종이 발각되거나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살해된다.
- 기독교인은 신앙을 이유로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되고 살해당한다.
- 기독교인은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표적이 된다.
- 기독교 개종자는 이슬람으로부터 개종한 것을 철회하라는 고문과 압력을 받는다.
- 기독교인 부모는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종에 참여하면 괴롭힘과 폭력을 경험한다.
- 2020년 10월: 이슬람 무장단체 JNIM(Jama'at Masr al-Islam wal-Muslim)의 납치범들이 2016년부터 억류되었던 기독교 선교사인 스위스 인질 베아트리스 스토에클리를 살해했다.
- 2017년 2월 7일, Koutial 근처 Karangasso에서 납치된 콜롬비아 수녀, 글로리아 세실리아 아르고티 자매는 2021년 10월까지 감금되어 있었다.(2022년 WWL 보고기간 제외)(CAN, 2021년 10월19일)
- 2020년 11월-2021년 3월말: 말리 중부에서 7명의 기독교인은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다. 풀려난 사람들은 아랍어로 말할 것과 이슬람 기도문을 암송하여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보고한다.
- 거부된 자원: 말리 정부보다 이슬람주의자들이 더 많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은 자원을 거부당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물과 땅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당한다.

최근의 이야기

현대 말리가 존재하기 전, 오늘날 말리의 일부를 차지하는 영토에서 번성한 여러 왕국과 제국이 있었다. 단명한 와술루 제왕 이후, 프랑스는 1892년 프랑스 수단이라 불리는 식민지를 세웠다. 프랑스 식민 통치는 1960년에 끝났고, 말리는 독립했다. 말리는 수십년 동안 일당 통치와 군사통치를 실험한 후, 1992년 새 헌법을 채택하고 민주 통치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2012년 3월 민주적으로 선출된 말리 정부를 전복시킨 쿠데타 이전에 이 나라는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 중 모범적인 국가로 여겨졌다. 특히 미디어는 활기차고 개방적이며 정부의 압력이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7년 대통령 선거 동안, 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선거 폭력이 거의 없었다. 70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투표권은 말리의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2년 투아레그 반군(수년 동안 말리 북부에서 활동했던)은 주로 알제리 출신의 일부 외국인 전사를 포함하여 급진 이슬람 단체와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정부군을 제압하고 여러 도시와 북부 말리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결과적으로, 군사 쿠데타로 문민정권이 축출되었지만 2013년 대선에서 베테랑 정치인이자 전 총리인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가 당선되면서 문민정권이 복원되었다.

말리 정부는 프랑스군의 도움으로 반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점령지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때때로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2013년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휴전이 체결되었다.(더 가디언, 2013년 6월 19일) UN이 12,000명의 강력한 평화유지군(말리의 다차원 통합 안정 임무라 불림)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는 여전히 말리 영토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추가적으로, 말리 국가는 높은 빈곤 수준과 관련하여 여러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속한 사막화와 물 부족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오지에 살고 있다.
2018년 7월/8월, 대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케이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야당의 사기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0년 6월과 7월, 대통령은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반대를 직면했다.

2020년 8월 18일, 케이타 대통령은 자칭 국민구원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Salvation)라 불리는 군인들 무리에 의해 축출되었다. (BBC 뉴스, 2020년 8월 19일) UN, 아프리카 연합, 지역 지도자들은 모두 쿠데타를 비난했지만 쿠데타 지도자들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구했다고 주장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확정했다. 2021년 5월, 2020년 쿠데타 지도자 아시미 고이타 대령이 권력을 장악하여 성취된 모든 진보를 뒤집었다.

종교적 모습

종교적 상황	지지자 수	백분율(%)
기독교인	476,000	2.3
무슬림	18,571,000	88.8
힌두신자	0	0.0
불교신자	0	0.0
민족 종교인	1,820,000	8.7
유대인	0	0.0
바하이	1,200	0.0
무신론자	1,300	0.0
불가지론자	22,800	0.1
기타	820	0.0
기타에는 중국민속, 신종교인, 시크교, 심령술사, 도교신자, 유교신자, 자이나교신자, 신도교신자,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포함된다.		

데이터 출처: Johnson T M and Zurlo G A,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접속일 2021년4월)

다른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말리는 수세기 동안 (대부분 온건한 형태로) 이슬람교와 종교적 정당을 금지하는 헌법상 세속적인 정치 체제에 의해 지배 받아왔다. 소수 기독교인들이 항상 다수 무슬림의 손에 의해 차별을 받아온 국가의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기독교인은 외국 기독교 선교사의 존재를 허용한 말리 사회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 말리 무슬림은 온건하고 다른 종교적 신념에 대해 관대하다는 평판을 받았다.

식민지 기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 수준도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고, 이제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말리 기독교인(대부분 로마카톨릭)과 무슬림 둘다 그들의 신앙을 토착 정령숭배신앙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민족 종교인과 애니미스트가 국내에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말라 기독교인은 말리 남부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북부에서 급진적인 이슬람 활동의 위협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WCD 2021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약 88.9%가 무슬림이며 대부부은 수피즘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의 한 교파인 말리카이트 수니파 이슬람교 신봉자들이다.

이 이슬람의 종류는 다른 종교에 대해 온건하고 관용적이다. 말리 북부에서, 특히 아랍과 투아레그 부족 사이에서 지난 몇 년 동안보다 급직적인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졌다.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가 2012년 팀북투를 장악했을 때, 팀북투의 13세기 수피 사원이 파괴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보다 급진적인 종류는 수피의 영향을 받은 종교 관습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

말리의 상황은 2012년 4월 말리 북부에 와자와드 독립 국가 수립이 선포되면서 급격하게 변했다. 대부분이 와하비로 식별될 수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은 곧 북쪽에 엄격한 샤리아 정권을 가진 이슬람 국가 체제를 수립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점령하기 전에 도망쳤다.

그 동안, 그들은 교회와 다른 기독교 건물들을 파괴했다. 남부 말리의 교회도 다양한 와하비 단체의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2015년 반군과 정부가 평화 협정을 맺고 국제 평화유지군을 투입했지만 말리사회의 이슬람 급진화는 계속되었고 이것은 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보안상황

WWL 2022 보고 기간 동안 불안정과 폭력은 국가에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다. 면책이 만연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해자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슬람 무장세력이 많은 공격을 감행했다. (국제위기단체, 2019년 5월 28일) 무장한 풀라니 목동들도 만행을 저질렀다. 2021년에는 사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이 더 강화되었다.

2021년 1-6월 기간 동안 CNBC 아프리카 APO 단체 (2021년 6월 29일)에 따르면

- "지난 6개월 동안 JNIM(Jama'at Nusrat al-Islam wal Muslimin) 및 ISGS(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 와 같은 단체에 의한 반복적인 공격과 공동선을 넘어선 폭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유엔 말리 인권 보호국(MINUSMA)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165건(남성 147명, 여성9명, 소년 7명, 소녀2명)을 포함하여 617건이 인권침해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된 121건의 살인을 포함해 449건의 학대가 약 37%증가했음을 나타낸다."

- "말리 전역에서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의 두드러진 사례는 주로 말리 중부의 지역사회기반 무장단체 및 민병대, 특히 Da Na Ambassagou 민병대, 그리고 JNIM과 같은 무장 단체에 의한 납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2021년 첫 6개월 동안 MINUSMA는 최소 328건의 납치(남성 307명, 소년 11명, 여성 9명, 소녀1명)를 기록했고, 이는 2020년에 기록된 187건 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이고, 2019년 납치건보다 4배 증가하였다."

수피교의 영향뿐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무슬림 대다수 국가에 비해 더 나은 민주적 시민적 자유 기록으로 인해 말리는 기독교인에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국가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2012년 내전과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상황을 바꾸었고 그 이후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위험과 도적이 있었다.

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과 같은 무장 이슬람단체는 특히 북부 지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UN평화유지군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나라의 평화유지군의 수를 늘리고 무장단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군사 행동을 허용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말리의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고 국가에 평화와 안정이 있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다. 2019년 7월, 영국 정부는 또한 이슬람 무장 세력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ISGS와 같은 지하드 단체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말리의 광대한 영토는 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성역이 되어가고 있다.

말리는 지하디스트의 온상지 중 하나인 사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날의 상황은 따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체사헬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세력과 와하비즘의 전반적인 상승의 일부이다. WWR, 2016년 8월) 따라서 전체 지역의 정치 및 안보 상황의 궤적은 말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말리정부와 다른 지역 국가들이 AQIM과 같은 무장 단체를 진압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 단체에 의한 청소년들과 사회의 급진화는 더 다루기 힘든 문제이고,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세력이 주목할 만한 공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1월 24일: 말리 중부에서 지하디스트 용의자가 군대를 공격하여 군인 6명 사망(프랑스 24, 2021.1.24)

- 2021년 2월 3일: 몹티 지역의 Douentza와 Hombori 지역 사이에 위치한 보니 캠프가 지하디스트의 공격을 받아 최소 9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Africannews, 2021.2.3)

- 2021년 2 년19일: 중부 몹티 지역의 반디아가라 인근에서 잇따른 공격으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부상당했다(로이터, 2021년 2월 19일).

- 2021년 3월 1일 : 의심되는 이슬람 무장세력이 말리 중부의 3개 마을을 공격하여 민간인 9명을 살해했다(로이터,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7일: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국경 근처 안송고 마을 남서쪽의 군 초소 공격으로 최소 31명의 군인이 사망했다(프랑스 24, 2021년 2월 17일).

- 2021년 4월 2일: 말리 몹티와 키달 지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테러 공격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4명과 말리 군인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안달루 기구, 2021년 4월 2일).

PRAY.
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요

기독교일들을 보호하지 않고 국제적 의무를 이해하지 않음으로 무장단체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말리 북부지역의 급진적 이슬람주의 자들에 의해 교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에 있는 크리스챤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현장스토리 1_이란

희망의 빛을 전하는 샤하르

신앙을 위해 얼마나 포기할 수 있나요? 당신의 자유, 안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나요? 무슬림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은 그들이 겪게 되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그런 여성들 중의 한명인 이란 여성 사하르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힌 채 사하르는 택시안에 있었다.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녀의 집은 천천히 그녀의 뒤로 시야에서 사라지고있었다. 만약 더 이상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이 안되면 누가 저녁에 잠자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줄 수 있을지? 가슴속에 그런 고통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나요?" 사하르는 기도했다.

보안상황

사하르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남편, 2명의 예쁜 자녀들, 돈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달랐다.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녀가 터키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때 그녀가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했지만 그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여성으로서 사하르는 가치없는 존재로 느꼈고, 두려워했다. "저는 나중에서야 그런 감정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설명하길 "저는 남자 아이와, 여자아이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가정에서 자라는 행운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모든 법, 모든 관계, 모든 것이 달랐어요. 이슬람계인 이란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똑똑하고, 덜 가치있고, 결정을 내릴 능력도 없게 여겨집니다."

사하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할 만한 일이 됩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도 저는 남편에게 아주 사소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슬람 사회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

사하르는 이슬람 종교에서 그녀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저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분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공허함 때문에 어린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 시작했었죠. 저는 자발적으로 라마단 기간에도 참여해서 자주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심지어 옷조차 매우 보수적으로 입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안되었어요. 여자 아이로서 저는 저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죠."

쿠란 이슬람 경전도 그녀에게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했다. "쿠란안에서도 저는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매우 혼동스러웠죠. 저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저는 24시간 하루 종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저의 마음에 가득 들어찬 질문에 대답해주지 못했죠" 라고 그녀가 말한다.

해답이 있는 책

그리고 어느날 사하르의 시누이가 절망에 빠진 사하르를 보고 그녀에게 복음을 나눠주었다. "시누이가 제게 신약 성경을 주었어요." 사하르는 기억하길 "저는 신약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저는 시누이가 신약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읽고 싶었어요. 제가 신약성경을 다 읽었을 때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말했죠. 저는 그분의 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보았고 하나님안에서도 발견했죠. 처음부터 저를 인도하신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하라 마음속에 있었던 공허함을 가득 채웠다. "저는 제 영혼과 삶을 감싸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제가 느낀 사랑은 엄청난 것이었고,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이것은 내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사하르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특별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딸이란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다른 여러나라에 있는 여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큰소리로 질문했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성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해요?"

사하르가 무슬림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사하르는 책들을 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여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것들에 관해 찾기 위해 성경책과 기독서적들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예수님이 여성들을 향해 보시는 관점

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원받고 단계적으로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더더욱 매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승리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여성들을 돕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박해

사하르는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왔던 모든 것을 찾았을지라도 그녀가 살고 있는 무슬림 세상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열광적으로 이슬람에 집착하는 남편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저를 남편이 알아차린다면 남편이 정말 분노하게 될 거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라고 사하르는 말합니다.

사하르는 무슬림 세상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성들이 부딪쳐야 될 위험에 직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속에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남편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실제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저로 인해 제 아이들을 저에게서 떨어트려 놓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만날 수 조차 없도록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권리는 개종 때문에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하르가 두려워했던 것이 실제일어 났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남편은 분노했고 그녀를 멀리 보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하르는 그녀의 부모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안에서 끝없이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었고 범죄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뿐이였어요. 하지만 수치심보다 더 나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 저로 부모가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시냐고 물으며 울부짖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다섯 살 난 제 아이를 보살펴 주시고 저녁 잠자리에 이불을 덮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은 부모로서, 한 여성으로서 힘들었는데 대게 부모로서 느끼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을 통해 사하르는 구세주께 매달릴 수 있었고 그분 안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고 갈망 했었기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어떤것도 채울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저는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사하르는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하르의 남편은 그녀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했고, 이 부부는 천천히 이전에 가졌던 사랑스러운 부부관계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가진 신앙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속에는 많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우리 부부는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부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단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위협은 존재합니다. 특히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하르는 교회 활동으로 인해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많이 걱정해주었어요. 제가 풀려났을 때 제 신앙에 대한 남편의 대우는 달라졌어요. 남편은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약속

장기 구금의 위협 때문에 사하르와 가족은 사하르가 풀려난 직후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터키에 살고 있으며 사하르는 계속해서 무슬림 배경을 가진 새신자 여성들과 함께 사역하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사하르가 겪었던 것보다 더 안좋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샤하르는 말하길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옆에 있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며 위로해줍니다."

이제 사하르에게 있어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들이 그녀 옆을 함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녀는 훈련을 받으며 그녀의 사역을 뒷받침해줄 깊은 성경적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주며 여성 사역자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격려를 얻습니다.

전세계에는 10억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배경을 가졌던 여성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은 그들 옆에 있어줄 사하르와 같은 자매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하르는 말합니다. "이런 무슬림계 여성 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부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그들 뒤에 계시며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픈도어를 후원해주심으로 무슬림 세계에서 무슬림 배경을 가진 여성 새신자들이 새힘을 얻게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훈련, 미디어, 상담도 여성 전문 주제로 제공받게됩니다. 오픈도어는 또한 실제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곁들이며:
이란에서 여성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란에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위험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 투옥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은 위험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란 내에서 여성의 취약한 지위 때문에 여성들이 특정한 박해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미혼이라면 집 밖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남성들에게도 일어나지만 여성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남성들은 룸메이트와 살수 있지만 여성들에게 부모나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부도덕한 생활방식으로 여겨집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이웃사람들이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 이웃들이 성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더 쉬운 일입니다.

결혼한 여성으로서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도록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란에서는 가정폭력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쉽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여성들은 부모 집으로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위협이 될만 한 방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복종시켜 이혼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무슬림 세상에서 새롭게 믿게된 여성들에게 비슷한 상황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장스토리 2_니카라과

정부의 감시에도 선교에 헌신하는 복음주의 목사님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이끄는 니카라과 정부는 정치적 계획들과 이데올로기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윌버목사님은 어느날 자신이 어떠한 잘못으로도 거짓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회 사명을 계속합니다.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이끄는 니카라과 정부는 정치적 계획들과 이데올로기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10년 동안 이 나라에서 복음주의 교회 중 하나를 이끌고 있는 윌버목사님은 국가의 모든 반대파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점점 더 단호해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으로의 삶은 2018년 시위 이후 수천 명의 니카라과 사람들이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삭감 제안을 포함하여 오르테가의 경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마나과 거리로 나섰을 때 윌버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오르테가와 그의 아내,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독재적이고 무자비한 정부의 성향에 불편해 했습니다. 시위에 대한 오르테가 대통령의 반응은 거칠고 신속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7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되었고, 최소350명이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경찰이나 예비군 단체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2018년6월, 윌버 목사님은 예배 중에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그는 회중에게 설교하면서, 교회에 경찰 요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정부 관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르테가 대통령의 특사들은 곧 그에게 그와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말것과 설교에서 정부를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내가 감시할 사람들의 명단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계속 일할 것입니다,"라고 윌버 목사는 오픈도어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회중 사이에 불안과 불신을 불러 일으키는 슬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윌버 목사님은 정부를 지지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언급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오픈도어에게 대통령 오르테에게 충성하는 지역 사회 사람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하는지,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언젠가 어떤 잘못으로도 거짓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목회 임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의 사명은 힘든 투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찾아 가져가는 것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만일 저희가 4 킬로 반그램의 쌀을 찾으면, 당국이 와서 누가 저희에게 쌀을 주었는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쌀을 살 돈을 어떻게 찾았는지 등을 묻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일은 위험한 노력이 되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라고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윌버 목사님에게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그의 교회에서 기적적인 회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일요일 감시를 위해 방문한 그의 교회에 온 두 명의 경찰관의 이야기를 오픈도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요원들은 예배 시간 동안 머물렀고, 목사님은 그들 중 한 명에게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경찰관은 울면서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제 동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스토리 3_베네쥬엘라

기독교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있는 빅토르 목사님의 사건

지난1월, 빅토리 목사님이 납치되었습니다. 그의 미망인 아내 카렌은 목사님이 협박을 받았지만, 남편 목사님을 해치고 싶어 할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 무장 갱단의 몇몇 조직원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이 발견한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본부를 둔 오픈도어 기지가 최근 38세인 목사님의 살해를 포함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주장을 철저히 조사함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기독교인들의 투쟁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1월, 빅토리 목사님은 대낮에 한 무리의 남자들에 의해 집에서 납치되어 알 수 없는 목적지로 데려갔으며, 그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픈도어와의 짧은 대화에서, 목사님의 미망인이자 안수를 받은 카렌은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왜 남편을 데려갔는지, 어디로 데려갔는지에 대한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그녀의 간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카렌과 빅터의 회중들은 교회에 모여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의 살해 소식은 다음날 새벽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카렌 목사님은 남편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9 년과2020 년에 그는 여러 불법 무장 단체들로 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들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자기들이 통제하는 지역, 특히 콜롬비아와의 국경에 가까운 지역들, 흔히 범죄 조직들 사이의 폭력적인 대결의 현장인 지역에서 전파하는 일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사님에게 활동하는 무장 단체 단원들이나 젊은 신임 단원들에게 설교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빅터 목사와 카렌 목사는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 사회에서 함께 설교했으며,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 회원들을 돕기 위해 작물을 심는 데 노력의 일부를 바쳤습니다.

무장단체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이 불법 무장 갱단의 몇몇 조직원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 발견한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해된 후 몇달 동안, 카렌 목사님은 지역 사회에 머물며 선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녀는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독교 가정을 지원하는 오픈도어

2020년부터, 콜롬비아에서 오픈도어는 이웃 베네수엘라의 여러 주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오픈 도어는 44 건의 박해 사례가 당국에 보고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파트너 조직인Vision Agape와 함께 수행된, 오픈 도어 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있는 일부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선교 및 목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성서를 국내로 수입하는데 높은 세금을 부과함.
- 교회 지도자들을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거짓 고발한 후 감옥에 데려감.
-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교회의 기부를 제한함.
- 종교 콘텐츠를 방송하는 독립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공격함.
- 교회, 지도자 및 회중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유지함.

범죄 조직들과 불법 무장 단체들의 끊임없는 위협.

베네수엘라에서 오픈도어의 사명은 기독교 부부와 그 가족이 직면 한 많은 어려움, 특히COVID 펜데믹 동안 악화 된 폭력과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멕시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아들의 생일 축하 행사동안 투옥되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풀려났을 때, 그들은 종교 자유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비어타스를 만났고 그의 변호 덕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성전을 짓기 위한 토지를 기부 받았습니다. 치아파스에 있는 성경 훈련원에서, 그들은 형제들과 이 기쁨을 나누었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예배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카톨릭외의 다른 종교를 가진 목사님들과와 설교자들은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은 치아파스, 오코싱고의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누에보 포블라도 제루살렌 공동체 외부의 큰 표지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습과 전통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부여된 종교는 가톨릭 종교이며 다른 종교를 고백하는 척하는 사람은 지역 사회 당국에 의해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지역 사회가 그들에게 등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수백 명의 기독교 가정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알론소 목사님과 그의 아내 후아나, 아들 에스테반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후아나 모레노와 알론소 고메즈님은 2017 년 신앙 때문에 누에보 포블라도 제루살렌 지역 사회에서 비난당하며 결혼한 부부입니다. 지난 5월, 아들 에스테반의 생일을 축하하는 동안 지역사회 당국은 집에 들어와 목사님을 4일 동안 투옥하고 석방을 위해 10,000 멕시코 페소(미화503 달러) 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목회자 가족에게는 불가능하므로 벌금을3,000 멕시코 페소(US $ 150)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믿음을 버리도록, 집을 파괴하는 것부터 땅을 빼앗는 것까지, 위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배모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한 목회자 친구를 통해 오픈도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픈도어가 제공한 지원은 약7개월 동안 지속된 박해 과정에서 영적 동행과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이 박해 기간은 기본 서비들의 복원과 함께 2017 년12 월에 끝났습니다. 2018년1월부터, 알론소 목사님의 교회는 목회자 집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항상 알론소 목사님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건축할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론소 목사님은 오코싱고의 지역 사회 당국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감동 시켰고 기부금으로 토지의 일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공용 토지 외부에 있지만 누에보 포프라도 제루살렌지역과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우 의욕적인 알론소 목사님은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알론소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정부 기관과의 절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픈 도어 멕시코 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변호사 호세 알프레도 산티스 (Jos Alfredo Santis)는 치아파스에서 변호 및 자유로운 예배의 권리 문제에 대해 오픈 도어 멕시코 팀과 협력하여 이 과정에서 알론소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절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했고 다른 부분은 알론소 목사님 교회에 모이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충당했습니다. 변호사 산티스가 작업한 첫 번째 일은, 토지 증서가 알론소 목사님에게 기증된 25x25 평방미터와 일치하도록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산티스의 경험으로 알론소 목사님이 토지를 기부금으로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돌이켜 토지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로 구매 및 판매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숙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년간의 과정을 거쳐, 2022 년9 월24 일, 알론소 목사님은 아내 후아나와 아들 에스테반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된 토지 부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부동산의 새 소유자인 알론소 고메즈 목사님에게 유효성과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증서를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저희는 주님을 위한 땅을 얻었고, 그것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알론소 목사님에게 5 년 전 그가 멀리서 보았던, 지금 남아 있고, 함께 있을, 심지어 박해 후에도 간증할 교회가 될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복음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픈도어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서길 원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여러분도 박해받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요

- 이란의 샤하르자매 비롯한 박해받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긴급구호와 영적 공급을 위해 후원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www.opendoors.or.kr]를 방문하셔서 정기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캠페인별 후원'을 통해서 일시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큐알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후원하기로 연결됩니다.

※ 문의: 후원문의(010-7548-3171) / 사무실(02-596-3171, 070-7522-3171)

오픈도어 영국팀 한국에 방문하다.

오픈도어 영국팀의 한국방문의 목적은 북한 선교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국 오픈도어에서 준비하여 함께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영국 오픈도어는 197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신실하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겨왔는데, 지난 20년간 박해지수 1위를 기록한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영국교회의 북한 선교에 참여를 돕기 위하여 한국 방문팀을 조직하여 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셨던 팀은 웨스터민스터 담임 하워드 목사님을 비롯하여 3분의 목사님과 후원교회 관계자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이번 방문을 통하여 오픈도어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특히 탈북자 학생들과의 1시간 이상의 나눔을 통하여 그들의 힘든 여정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았다며,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_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2년 올 한 해도 오픈도어선교회와 함께해주신 후원자님의 나눔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미리 준비하세요!

0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또는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후원하기 > 나의 후원 정보(미가입 시, ID 만들기 후 로그인) >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03.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 나의 후원 정보에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2023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T. 02-596-3171 / 010-7548-31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골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 5일 ○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